

NIMBYism,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 The Impact of General Trust, Volunteering and Giving on NIMBYism -

Jeong An Song⁺

Kwangwoon University, Kwangwoon-ro, Nowon-gu, Seoul, Korea

Abstract

The key thesi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general trust) and civic engagement (volunteering and giving) on Nimbyism, an attitude ascribed to persons who object to the siting of unwanted public facilities in their own neighborhood. To explore this, a growth mixture model was applied to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6-2015). The results showed that three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low-rapidity NIMBYism, mid-rapidity NIMBYism, and high-rapidity NIMBYism), and that general trust, volunteering and giving not only lowered but also enhanced NIMBYism, depending on how fast NIMBYism increased. Finall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nimbyism, conflict, general trust, volunteering, giving

1. 서론

본 연구는 님비갈등 영향 요인 중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탐색으로서 일반 신뢰, 자원봉사·기부라는 시민참여가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 님비·갈등연구들은 님비갈등에 대한 절차적 정의 요인으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를 다루어 왔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Choi, 2012; Cheon, 2000; Kang & Kim, 2013; Park, 2016). 사회자본에서는 정부신뢰, 시민참여는 특정 갈등 사안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로 분석이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님비 갈등

의 공공 갈등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이며, 또한 갈등 해결의 사후적 접근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님비갈등이 발생하면 정부와 이해당사자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지기에 정부신뢰와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참여가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갈등 예방 차원과 사회갈등적 측면에서 님비 갈등을 바라보면, 평상시 개인 수준에서 님비 태도는 조금씩 형성되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자본의 유형들과 시민참여 활동들이 님비 태도 형성에 관여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그중 일반적 신뢰와 자원봉사는 몇몇 님비갈등 연구에서 변수로 다루어진 바 있으며, 기부는 아직 갈등연구에서 시민참여 변수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 님비·갈등

⁺ Corresponding author: Jeong An Song, Tel. +82-02-940-5330, e-mail. jaro2000@naver.com

분석에서 사회자본이나 시민참여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떠한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필수적인 탐색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님비·갈등연구에서 분석이 드물었던 사회자본 요소인 일반신뢰, 자원봉사·기부라는 시민참여가 님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반신뢰는 사회자본의 주요 요소로서 갈등 완화에 대한 정의 영향이 발견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님비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자원봉사의 경우 일부 갈등 연구에 정의 영향이 발견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 검토의 결과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기부는 갈등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시민참여 변수이다. 기부는 물적 자원을 통해 타인을 위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 많은 부분 인적 자원을 통해 기여하는 자원봉사와 유사점이 많고 참여율도 높은 시민참여 유형으로 탐색적으로 가치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첫째, 일반신뢰는 개인의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원봉사는 개인의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부는 개인의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기존 갈등 연구들은 특정 갈등 사례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사례 분석이나 횡단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상태에서 개인이 갖는 님비 태도와 님비 태도의 변화를 탐색한다. 즉, 개인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님비 태도의 종단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본 분석의 결과는 갈등 발생 잠재성으로서의 개인들의 님비 태도 변화 추이와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자본과 시민참여가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갈등 관리 및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님비 현상과 영향 요인

님비(NIMBY)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선호 개발이 이루어지려할 때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부 방식 혹은 보호적 태도이며 주민들은 대개 문제가 되는 비선호 시설이 반드시 어딘가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기를 바라는 태도’(Dear, 1992: 288)를 일컫는다.

님비 갈등 현상은 19세기 영국의 정신병동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사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1970년대 미국에서 지역 입지 시설 및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빈번해진 지역 갈등을 님비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Eranti, 2017). 학계에서 해당 용어를 끌어와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초기에는 님비현상을 주로 주민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님비 현상이 갖는 인종·계급적 환경 정의적 측면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 참여 일환으로 사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긍정적 갈등 측면도 공유되고 있다(Hubbard, 2006; Wolsink, 2006). 또한 문화마다 님비 갈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인식이 달라 경우에 따라 님비는 합법적 정당성을 갖는 저항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핵심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Lamont & Thevenot, 2000).

그러나 님비는 한번 발생하면 분명 부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건강, 환경, 지역·자산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한번 발생한 갈등은 해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

게 되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님비 갈등을 유발 혹은 완화하는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다(Esiasson, 2014).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님비 갈등은 대체로 경제적 이익 요인, 환경 및 사회 정의 요인, 절차적 정의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적 요인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혹은 지역주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 등이 있으며 님비 연구 초기부터 가장 오랫동안 분석되고 있는 님비 갈등 요인에 해당한다(Freudenberg & Pastor, 1992; Gibson, 2005; Thevenot & Lamont, 2000). 특히 서구권 연구들에서는 님비 갈등에서 사적 재산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는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불신의 영향이 분석되고 있다(Thevenot & Lamont, 2000).

환경·사회적 정의 요인도 경제적 요인만큼 님비 사례에서 유의한 갈등 유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유지해 온 환경에 대한 가치 옹호나 개발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안전 인식이 관련이 있다(Boltanski & Thevenot, 2006; Eranti, 2017).

절차적 정의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정부신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식되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주민 참여의 가능성 등에 관한 것이다(Midden & Huijts, 2009; Gross, 2007; Petorva, 2016). 한국에서도 Choi(2012)이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이 혐오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구자들마다 통제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설명변수로 분석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 요인들은 일정한 방향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Vorkinn & Riese(2001)은 노르웨이 사례에서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소득일수록 님비 갈등 발생 확률을

높임을 보여주었고, Groothuis & Miller(1994)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졌다.

2. 님비 현상에 대한 사회자본·시민참여의 영향

1) 사회자본, 시민참여, 님비 갈등

아직까지 님비 연구에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영향에 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신뢰 혹은 개발자에 대한 신뢰, 특정 님비 갈등 해결 과정에의 이해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라는 부분이 경제적 이익 요인이나 절차적 정의 요인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다루는 사회자본과 시민참여가 정부 신뢰, 이해 당사자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위주로 그 외연의 폭이 넓지 않은 데 이는 대개 선행 분석들이 님비 갈등을 정부와 주민 간 공공 갈등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님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갈등이 해결 혹은 악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사후적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갈등 예방적 관점에서 갈등 발생 사전적으로 사회자본이나 시민참여가 개인의 갈등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갈등 예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내외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분야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못한 사회자본 하위 요소들로서 일반신뢰, 자원봉사·기부라는 시민참여가 개인의 상시적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사회자본의 영향: 일반신뢰

님비 현상을 포함한 갈등 관리 혹은 예방에 있어 일반신뢰는 왜 중요한가? 사회자본으로서 일반신뢰(general trust)가 갖는 중요성은 일반신뢰가 가족이나 친숙한 집단 및 지역 구성원 간의 관계보다는 여러 이질적인 집단 간 혹은 서로 다른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유형의 사회자본(cross-cutting social capital)이라

는 데 있다(Earle, 2010). 님비 현상은 불확실한 것 혹은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느끼는 위기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Hunter & Leyden, 1995), 개인이나 지역이 보유하는 일반신뢰가 높아지면 자신의 가족, 자신이 사는 동네나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불확실하고 낯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 정의 영향을 줄 것이 예측되는 것이다.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미국 초기 역사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을 기술한 Tocqueville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 사회자본의 개념화는 Putnam에 이르러서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신뢰,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공재'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오늘날 공동체, 시민참여, 민주주의, 사회갈등, 정부 성과 등의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적 틀로 적용되고 있다(Edward & Foley 2001, Song, 2013에서 재인용).

그런데 사회자본이 가져오는 다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자본이 정말 늘 사회 통합적인 순기능만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Fiorina, 1999; Putzel, 1997). 이에 사회자본은 정보나 협력이 특정 그룹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폐쇄적인 응집(bonding) 유형과 여러 그룹 간 활발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연계(bridging or networking) 유형이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Middleton, *et. al.*, 2005).

그중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은 개방성을 갖는 연계형 사회자본이다. 신뢰가 근대 이후 사회에서 중요성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것, 다시 말해 친밀감에 근거한 전근대사회의 거래와 달리 낯선 사람들과의 거래가 필수적인 근대사회에서는 일반신뢰 없이 관계와 거래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Durkheim, 1933; Misztal, 2013에서 재인용). 이에 일반신뢰는 존재하는 기존 관계가 형성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오래 고착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안전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역량을 제고하게 된다(Hayashi & Yamagishi, 1998).

특히, 일반신뢰는 갈등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발적으로 해결해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상시적인 예방 혹은 회복력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여겨지고 있다(Adger, 2003). 실제 기존 갈등 및 위기 연구들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그룹 혹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아닌 광범위하게 신뢰의 범주를 넘나드는 유형으로서 일반신뢰는 위기 인식을 유의하게 낮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Siegrist, *et. al.*(2005)은 일반신뢰가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일반신뢰가 사람들의 위기 인식을 유의하게 낮춤을 보여주면서 위기나 갈등 관리에서 일반신뢰가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Uslaner(2013)는 미국 필라델피아 자료를 통해 일반신뢰가 상시적인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게 위기 인식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Ding, *et. al.*(2012)은 일반신뢰가 특정 식품에 대한 위험 인식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Kim(2018)은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에서 일반신뢰가 유의한 갈등 완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Chang, *et. al.*(2009)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잠재적인 갈등 태도에 일반신뢰가 유의한 부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일반신뢰가 갖는 이론적 함의와 위기·갈등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신뢰의 유의한 위기 인식 혹은 갈등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아직은 갈등으로 발현된 것은 아니지만 님비 행동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인 수준의 상시적 님비 태도를 감소시키는 데도 일반신뢰는 정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가설1.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님비 태도는 감소할 것이다.

3) 시민참여의 영향: 자원봉사와 기부

다양한 유형의 시민참여는 사회자본을 형성하며(Adler & Kwon, 2002; Putnam, 2003), 참여 행위가 폐쇄적이고 응집적이거나 개방적이고 연계적인가에 따라 사회갈등 및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Foster, *et. al.*, 2005).

일례로, Shemtov(2003)는 미국 특정 주 님비 현상에서 나타난 사회운동적 시민참여가 님비 저항 운동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는데, 님비의 확산이 지역 내 가족과 가까운 관계 중심의 홍보에서는 효과가 컸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난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시민참여가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연계성이 님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특별히 자원봉사와 기부라는 시민참여가 응집적 속성을 갖는지 연계적 특성이 강한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몇몇 중단연구에 의한 인과성 검증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일반신뢰 형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자원봉사라는 시민참여가 갖는 폐쇄적 속성을 시사하고 있다. Bekkers(2011)는 네덜란드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일반신뢰에 대한 자원봉사 영향의 인과성을 중단분석했으며, 그 결과 자원봉사는 오히려 일반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이를 유럽 4개 국으로 확장한 연구, Ingen & Bekkers(2015) 역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으며 자원봉사와 일반신뢰의 관계는 자기선택 편향에 의한 것임이 검증되었다. 즉,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일반신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신뢰가 높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며,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일반신뢰는 유의하게 낮아졌다.

Rotolo & Wilson(2014)는 지역의 인구 이질성과 자원봉사 간에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집단에 개방적인 활동이기 보다 유사성에 기반한 응집성을 갖는 활동임을 시사하였다. Wilkinson(2010)은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성에 기초한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사적인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귀결되는 성격이 강함을 보여주며 자원봉사활동을 사적 공동체 형성 과정이라고 보았다. Kawecka(2011)는 부유층 청소년들이 하는 빈곤계층 대상 자원봉사활동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빈

부격차, 계층이동 등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자선적 만족에 머무르게 한다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Woolley(1998)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간 사회적 포용성 정도에 차이가 없으며 정치적 이념 차이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더 낮았다.

한편, 기부가 어떠한 성격의 사회자본인가를 판단해 볼 기존 연구들은 자원봉사보다 더 부족하다. 다만, 캐나다 국가 통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 간 사회적 가치 차이를 조사한 Reed,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동네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컸지만,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에서 지역 인식은 유의하게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기부 행위는 인종차별적 성향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도적 가치와 관련이 있지만, 기부는 자원봉사와 달리 지역 기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원봉사 대비 개방적인 속성을 갖는 시민참여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선 자원봉사는 님비 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이 예측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타인에 대한 개방적 특성을 갖는 일반신뢰를 오히려 줄이고, 지역사회 이질성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는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나 동네에서 형성되는 좁은 사회적 관계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가 자기가 사는 지역 외 다른 지역 혹은 자신과 다른 집단 등에 개방적이기 보다 폐쇄적인 응집성 성격의 시민참여 유형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자원봉사 참여가 많아질수록 지역과 개인의 이익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님비 갈등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는 거부 태도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기부는 일부 연구에서 자원봉사 대비 지역 인식이나 자신과 이질적인 그룹에 대한 차별과 무관한 인도적 시민참여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부가 갖는

사회자본적 속성을 유추해보기 위한 선행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에 기부에 대해서는 가설보다는 탐색적인 연구 질문이 설정되었다.

가설2.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개인의 님비 태도도 증가할 것이다.

연구질문1. 기부 참여 정도는 개인의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본 분석은 다음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두 가지 연구질문을 탐색한다. 가설은 일반신뢰와 자원봉사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님비 태도는 감소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개인의 님비 태도도 증가할 것이다. 연구질문은 우선 앞서 설정된 기부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는 개인의 님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과 연구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님비 태도 변화 잠재계층 도출이 필요하여 다음의 연구질문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

다. 둘째, 님비 태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는 몇 개인가?

기존의 님비 갈등 연구들은 대부분이 사례 분석의 질적 연구이거나 양적 연구인 경우도 횡단연구가 많았고,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사회적 영향 분석 역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횡단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한계로 한국사회가 갖는 님비 갈등의 상시적 잠재성이 될 수 있는 개인이 가지는 님비 태도의 변화 추세나 이에 대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기부라는 시민참여 수준이 개인이 지니는 님비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가 실행한 분석의 강점은 한국 시민들의 님비 태도의 변화를 모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의 형태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과 사회자본, 시민참여의 관계를 검증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적 군집분석과 다른 것으로, 변화의 형태에 따른 집단은 확률적 추정통계를 통해 도출되며 이를 잠재계층(latent class)이라고 부른다.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님비 태도 변화에 따라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각 잠재계층을 결정짓는 사회자본·시민참여의 효과가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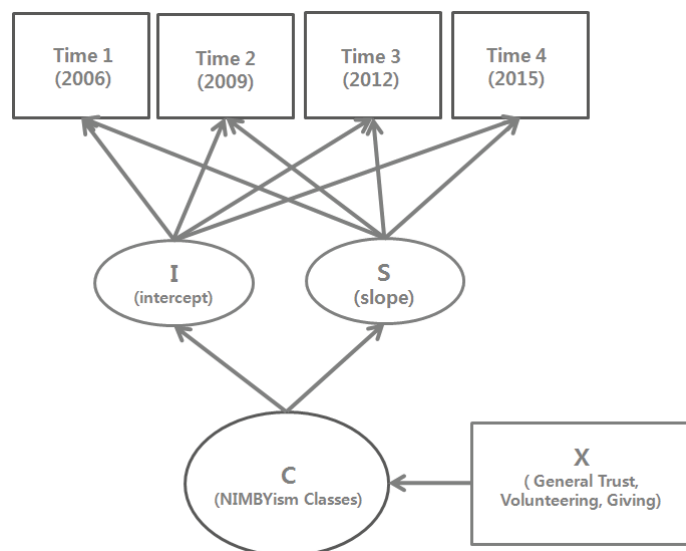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frame

방법은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이다. 이를 위하여 Mplus 8.1를 활용하였다. 기존 성장모형은 성장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간주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실제로는 전혀 이질적 집단이 존재하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여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왜곡시킬 수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성장혼합모형은 이러한 편향을 보완해주며 개인의 님비 태도의 변화에 있어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토하며 이후 일반실패, 자원봉사, 기부에 의한 각 잠재계층에 따른 변화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측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2006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2006년), 4차(2009년), 7차(2012년), 10차(2015년) 조사자료, 13,821명의 가구원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해당 차수의 선택은 본 연구가 포함하는 님비 태도, 일반실패, 자원봉사, 기부가 모두 조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본 연구의 분석이 다루는 님비 태도, 일반실패, 자원봉사, 기부를 대상으로 종단 측정하는 자료로 국내에서 유일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확률비례추출과 국민실태조사 표본 가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무작위로 일반, 저소득 각각 3,500개 가구를 추출하며 총 7천 가구로 구성된다. 한국패널조사 자료는 특별히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현황 및 정책수요 도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통계 자료 대비 저소득층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과표집하지만, 국내 자료로서 가구단위 패널조사로 가장 규모가 크고 원가구 표본 유지율이 높아 사회정책 분야 종단연구를 위한 규모의 샘플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n, 2010).

2)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개인의 상시적인 님비 태도

이다. 님비 태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특수 시설이 입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갖게 되는 거부감 정도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일시겠습니까?'라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해당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 항목은 거부감이 아닌 수용성 방향에서 측정되어 분석에서는 거부 방향으로 역산 변환 후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사회자본은 일반실패, 시민참여는 자원봉사, 기부로 측정되었다. 일반실패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함, 매우 조심해야 함, 잘 모르겠음의 세 범주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1, 나머지를 0으로 더미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자원봉사와 기부는 정기적인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자원봉사는 정기적 참여를 하는 여부로 참여 회수가 1 이상인 경우는 참여로 1, 0인 경우는 비참여 0으로 더미 코딩되었다. 기부는 기부액수가 0보다 클 경우 참여로 1로, 0인 경우는 비참여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나이, 성별, 경제수준, 경제활동 여부, 교육수준, 주택 점유 형태, 거주지역의 수도권 여부, 이사 빈도, 가구원수, 종교 유무가 투입되었다. 나이는 비율변수로 연도로 측정된 것을 나이로 환산하여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를 각각 1과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소득수준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가구 저소득층가구 구분을 따라, 각각 0과 1로 더미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유를 1, 무급가족봉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 무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졸업, 휴학, 중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무학에서 대학원까지의 여섯 가지 범주를 순차적으로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투

입하였다. 주택 점유형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자가인 경우 1로 전세·월세는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현재 거주지의 수도권 여부는 수도권 1, 비수도권 0으로 코딩하였다. 이사 빈도는 지난 해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이사함을 1로 이사하지 않음을 0으로, 가구 원수는 기입된 비올변수를 그대로 투입하였다. 종교 유무는 원자료에서 종교 형태에 무관하게 있음 1, 없음 2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각각 1과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잠재 계층 수의 결정

개인의 남비 태도 변화 양상에 따른 적절한 잠재 계층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의 과정은 AIC, BIC, SABIC (조정된 BIC) 지수 검토, 분류의 질(Entropy), 잠재계층의 비율 확인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 잠재계층모델에 대한 global maxima 검증 실행으로 진행되었다.

AIC, BIC, SABIC 지수 검토 결과, 잠재 계층의 수가 4개일 때까지는 지수가 모두 낮아지면서 모형 적합도가 좋아졌지만 5개 잠재계층 모델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 모형 적합도 개선이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tropy는 모델2(3개의 잠재 계층)와 모델3(4개의 잠재 계층)에서 .99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계층 수 3인 모델과 4인 모델에서 각 모델의 잠재계층의 변화 모습과 각 잠재 계층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4개의 잠재 계층 모델이 도출한 하위 집단들 중 하나의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이고 10%를 구성하는 나머지 세 집단이 각각 2~3%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규모의 세 집단은 변화 양상도 모두 증가로

동일하였다. 각각 2~3%를 차지하는 동일한 증가 추세 집단을 구분되는 세 집단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 이론적 의의가 적다고 판단, 본 연구는 위 통계와 지수 검증, 분류의 질, 이론적 의의 검토를 종합하여 남비 태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 계층을 총 3개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계층의 수가 3개인 모델이 global maxima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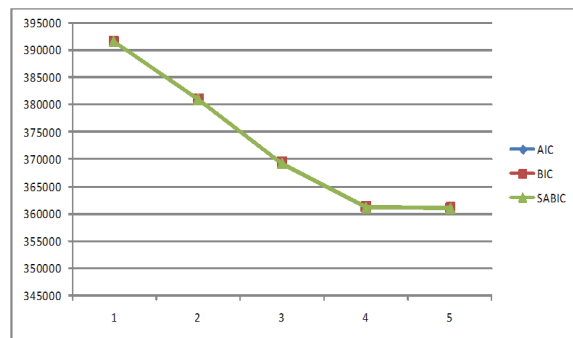


Figure 2. Unconditional LCA fit statistics.

도출된 세 개의 잠재 계층의 변화 형태는 Figure 3과 같다. 모든 집단에서 남비 태도는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치와 증가 속도가 달랐다. 3개의 잠재 계층은 남비 태도(새로운 시설 입지에 대한 상시적 거부감)의 초기치가 가장 높았지만 남비 태도의 증가 속도는 가장 낮은 집단(높은 초기치-저속도 증가 집단), 남비 태도가 초기에 중간 수준이었고 증가 속도도 중간으로 나타나는 집단(중간 초기치-중속도 증가 집단), 남비 태도가 가장 낮은 초기치를 보이면서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집단(낮은 초기치-고속도 증가 집단)로 구분되었다.

처음 가장 높은 수준의 남비 태도를 지니고 저속도로 남비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은 전체의 90.4%로 대

Table 1. Relative fit indices for latent class models

Number of classes	1	2	3	4	5
AIC	391529.17	380949.68	369191.16	361170.92	360951.83
BIC	391596.97	381040.09	369304.17	361306.53	361110.04
SABIC	391568.37	381001.95	369256.50	361249.33	361043.30
ENTROPY	-	0.99	0.99	0.99	0.76

Table 2. Latent class profiles of NIMBYism change.

		n (%)	I		S	
			M	SD	M	SD
LC1	low rapidity	12,500 (90.4)	2.35***	0.01	0.10***	0.01
LC2	mid rapidity	850 (6.2)	1.88***	0.04	12.22***	0.15
LC3	high rapidity	471 (3.4)	1.31***	0.06	25.65***	0.21

*** $p < .001$

부분이 낮은 증가 그룹에 속하였고, 처음 중간 수준의 님비 태도를 보이면서 증가 속도도 중간으로 나타나는 집단은 전체의 6.2%, 처음 가장 낮은 수준의 님비 태도를 보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는 집단은 가장 소수인 3.4%를 차지했다. 최근의 특정 시점 기준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님비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초기에는 님비 태도가 가장 낮았으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이며 초기 측정 시점 가장 높은 님비 태도를 보였으나 가장 적게 증가하는 집단의 최근 님비 태도는 가장 낮은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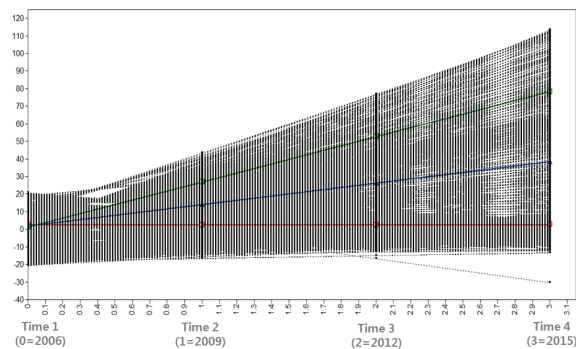


Figure 3. Estimated means and observed individual growth trajectories for three latent classes model.

2. 님비태도 변화에 대한 사회자본·시민참여 영향 앞에서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개인의 님비 태도 변화에 대한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독립변수 중 님비 태도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유의한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검증은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나 앞서 도출한 잠재계층모형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개의 잠재계층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동시에 계산하는 3단계 분석(R3STEP analysis) 방식을 적용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일반신뢰에 대한 가설1은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의 님비 태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신뢰의 갈등 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예측한 대로 일반신뢰는 대체로 님비 태도 증가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신뢰는 님비 태도가 중간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룹(Estimate=.27, $p < .001$)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룹(Estimate=.15, $p < .001$) 대비 대다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장 낮은 속도 증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는 어떤 집단과 비교하더라도 님비 태도를 가장 낮은 속도로 증가하게 하는 일반신뢰의 상시적인 님비 갈등 완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입지하게 될 기피시설에 반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낮은 속도로 님비 태도를 증가시키게 하는 갈등 완화의 잠재력을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반신뢰는 중간 속도 그룹 대비 오히려 가장 빠르게 님비 태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집단에 속할 확률도 증가시키는 예외 영역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Estimate=-1.12, $p < .001$).

자원봉사에 대한 가설2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님비 태도는 증가할 것이라는 자원봉사의 갈등 촉진 효과였다. 가설이 예측한대로 자원봉사는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이 속해 있는 님비 태도가 가장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중간 속

Table 4. Conditional LCA results: the impact of general trust, volunteering, and giving on NIMBYism change rapidity

	Low vs. Middle		Middle vs. High		Low vs. High	
	Esti-mates	SD	Esti-mates	SD	Esti-mates	SD
general trust	2.72***	0.40	-1.12***	0.27	1.59***	0.28
volunteering	-9.78***	1.41	0.84***	0.10	-8.93***	1.39
giving	-0.41***	0.07	0.13*	0.05	-0.29***	0.06
sex	0.98*	0.38	0.04	0.36	1.03***	0.15
age	-0.01***	0.02	1.20***	0.10	1.20***	0.10
educa-tion	3.71***	0.83	-0.27	0.46	3.44***	0.58
income	2.86**	0.87	-0.01	0.57	2.86***	0.53
economic activity	-0.02	0.01	0.01	0.01	-0.01	0.01
house owner-ship	0.85***	0.18	-0.47**	0.17	0.38***	0.06
residence in Seoul	1.62**	0.49	0.32	0.31	1.94***	0.49
moving frequency	0.42***	0.10	1.23	0.21	1.65***	0.22
family member	2.29***	0.32	-1.67***	0.28	0.61***	0.16
religion	0.53***	0.10	-0.44	0.01	0.10	0.06

* $p < .05$ ** $p < .01$ *** $p < .001$

도($Estimate = -9.78$, $p < .001$)나 가장 빠른 속도($Estimate = -8.93$, $p < .001$)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들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올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촉진 효과는 모든 개인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님비 태도 중간 속도와 빠른 속도 증가 집단 간 비교에서 후자 대비 전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Estimate = .84$, $p < .001$). 그러나 자원봉사는 어떤 집단과 비교하여서도 가장 낮은 속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는 자원봉사가 부분적으로 갈등 완화 효과를 갖는다 해도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에 대비해서는 약한 완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부에 대한 연구질문1은 님비 태도 변화에 대한 기부 정도의 영향이었다. 기부 행위는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갈등 촉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입지할 경우 이를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이는 낮은 속도 증가 집단($Estimate = -.41$, $p < .001$)과 중간 속도 증가 집단($Estimate = -.29$, $p < .001$) 대비

빠른 속도로 님비 태도가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님비 태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집단 대비 중간 속도로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 역시 높음으로서 부분적인 갈등 완화 효과도 있었다($Estimate = .13$, $p < .05$). 그러나 기부도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과 비교하여서도 가장 낮은 속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는 기부가 갖는 이러한 부분적 갈등 완화 효과도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님비 태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님비 태도 변화 속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님비 태도 변화 잠재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추가적인 연구 과제로 심층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결론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시민참여가 개인의 님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시점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님비 태도 변화를 패턴에 따라 잠재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잠재 계층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6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민들의 님비 태도는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은 높은 초기치-느린 속도 증가 집단, 중간 초기치-중간 속도 증가 집단, 낮은 초기치-빠른 속도 증가 집단, 세 부류로 나뉘어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신뢰라는 사회자본과 자원봉사, 기부로 측정된 시민참여는 모두 님비 태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졌다. 다만, 이러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갈등 완화 효과가 님비 태도 증가 속도에 따른 잠재계층들에서 다르게 혹은 정반대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이러한 두 얼굴은 사례분석이나 횡단분석을 활용한 기존 님비·갈등연구들에서는 포착되지 못했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영향의 세밀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반신뢰의 갈등 완화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신뢰가 위기 인식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Uslaner(2013)의 연구 결과나 한국의 경우 일반신뢰가 공공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잠재력을 갖는다는 Kim(2018), Chang,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갈등 완화 효과에 대한 일반신뢰의 순기능을 재확인시켜주며, 평상시 시민들이 보유했던 일반신뢰가 상시적인 일반적 님비 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님비 갈등 상황 나타날 가능성을 상당히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신뢰가 갖는 갈등 축진의 잠재성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일반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님비 태도는 어떤 집단에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 속도로 님비 태도를 증가시키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그러나 동시에 중간 수준 대비 님비 태도를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는 집단에 속할 확률도 함께 높였다. 중간 수

준의 님비 태도 증가 그룹 대비 낮은 그룹과 빠른 그룹으로 속하게 하는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일반신뢰의 양면적 현상은 과연 이러한 서로 다른 귀속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의 갈등 축진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원봉사의 일반신뢰 저해 효과에 대한 종단분석 연구(Bekkers, 2011; Ingen & Bekkers, 2015), 자원봉사가 다양성이나 포용성과 부의 효과를 가지며 네트워크 폐쇄성을 갖는다는 연구들(Kawecka, 2011; Rotolo & Wilson, 2014; Wilkinson, 2010; Woolley, 1998)과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간 자원봉사라는 시민참여 유형은 님비나 갈등·위기 연구들에서 변수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갈등연구에서 분석에 투입된 경우 자원봉사는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난 바는 있다(Kim, 2018). 이는 분석방식, 분석수준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데, 특히 특정 시점 자원봉사가 갈등 완화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정반대의 갈등 축진 효과도 있다는 결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자원봉사는 어떤 그룹과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 속도로 님비 태도를 증가시키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지는 못했으나 상대적으로 님비 태도 증가가 빠른 상태에서 중간 정도로 완화되는 정도의 갈등 완화 잠재성은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부는 2017년 사회조사 기준 26.7%의 참여율을 보이는 시민참여 행위로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17.8%)보다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양적으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 시민참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는 님비 혹은 갈등,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시민참여 유형으로 분석에 투입된 예가 자원봉사보다 더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다. 기부는 개인의 님비 태도를 대체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떤 집단과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 속도 증가 그룹에 속하게

할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른 속도 증가 영역에서 속도를 중간 수준으로 약간 완화하는 효과만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부 역시 갈등 관리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시민참여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이러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가의 기부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 상당히 도전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향후 갈등 연구에서의 기부라는 시민참여 변수에 대한 분석을 활성화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님비 갈등 관리에 있어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는 유의한 갈등 예방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반신뢰 형성과 자원봉사·기부 참여를 촉진할수록 우리 사회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공동체 및 지역사회가 일반신뢰를 충분히 보유하고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의 갈등 예방 기능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는 모두 더 빠른 속도로 님비 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잠재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자본과 시민참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님비 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님비 태도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지역사회가 동일한 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혀 이질적인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시각의 제안인 것이다.

갈등 예방 관리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회자본, 시민참여 활성화 접근으로는 효과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 잠재성 증가를 야기하는 잠재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등 세밀한 대상 파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로 다른 갈등 관리 전략 도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중 나이가 많을수록 님비 태도 낮은 속도 증가 그룹 대비 중간 속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발견되는데, 유의한 차이가 특히 어느 연령대를 기준으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연령대별 다양한 정규·평생교육과정이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서 갈등 예방 교육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님을 비롯한 사회·공공갈등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식적 갈등관리 제도 도입과 함께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해결과 잠재력 축적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경험적 분석에서도 공식적 제도보다 이미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 시민참여의 효과가 갈등 완화에 더 유의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Kim, 2018).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 영역만이 아니라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 기부, 마을,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공식적 시민참여정책·제도, 이에 관련된 정부·시민사회 행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어떠한 시민참여도 긍정적 사회적 결과와 함께 집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갖는 두 얼굴이 있음을 인식하고 후자를 감소시켜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dger, W. N. 2003. Social Aspects of Adaptive Capacity. In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y and Development* 29. World Scientific.
- Adler, P. S. and S. W. Kwon.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Asparouhov, T. and B. Muthén.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ekkers, R. 2012. Trust and Volunteering: Selection or Causation? Evidence from a 4 Year Panel Study. *Political Behavior*. 34(2): 225-247.
- Boltanski, L. and L. Thévenot. 2006. *On Justification: Economies of Wort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i, Hwa Sik. 2012.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tion Conflicts by Types of Non-preferred Facilities. *Urban Administration*. 25(4): 123-151.
- Dear, M. 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 288-300.
- Ding, Y., M. M. Veeman, and W. L. Adamowicz. 2012. The Impact of Generalized Trust and Trust in the Food System on Choices of a Functional GM Food. *Agribusiness*. 28(1): 54-66.
- Duncan, T. E., S. C., Duncan and L. A. Strycker. 2013.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Routledge.
- Earle, T. and M. Siegrist. 2008. Trust, Confidence and Cooperation Model: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rust and Risk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8(2): 17-29.
- Earle, T. C. 2010. Trust in Risk Management: A Model-base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0(4): 541-574.
- Earle, T. C., M. Siegrist, and H. Gutscher. 2010. *Trust in Risk Management: Uncertainty and Scepticism in the Public Mind*. Earthscan.
- Eranti, V. 2017. Re-visiting NIMBY. *The Sociological Review*. 65(2): 285-301.
- Esaiasson, P. 2014. NIMBYism: Re-examination of the Phenomenon. *Social Science Research*. 48: 185-195.
- Fiorina, M. P. 1999. Extreme Voices: A Dark Side of Civic Engagement.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395: 405-413.
- Foster, M. K. and A. G. Meinhard. 2005. Women's Voluntary Organizations in Canada: Bridgers, Bonders, or Both?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6(2): 143-159.
- Freudenberg, W. and S. Pastor. 1992. NIMBYs and LULUs, Stalking the Syndromes. *Journal of Social Issues*. 48: 39-61.
- Gibson, T. A. 2005. NIMBY and the Civic Good. *City and Community*. 4: 381-401.
- Groothuis, P. A. and G. Miller. 1994. Locating Hazardous Waste Facilities: The Influence of NIMBY Belief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3(3): 335-346.
- Gross, C. 2007. Community Perspectives of Wind Energy in Australia: The Application of a Justice and Community Fairness Framework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Energy Policy*. 35(5): 2727-2736.
- Hayashi, N. and T. Yamagishi. 1998. Selective Play: Choosing Partners in an Uncertain Worl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4): 276-289.
- Hubbard, P. 2006. NIMBY by Another Name? A Reply to Wolsink.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 92-94.
- Hunter, S. and K. M. Leyden. 1995. Beyond NIMBY: Explaining Opposition to Hazardous Waste Facilities. *Policy Studies Journal*. 23(4): 601-619.
- Ingen, E. and R. Bekkers. 2015. Generalized Trust through Civic Engagement? Evidence from Five National Panel Studies. *Political Psychology*. 36(3): 277-294.
- Jang, Yong Seok, Jang Hun Jeong and Mun Seok Cho. 2009.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Survey Research*. 10(2): 45-69.
- Jeon, Joo Sang. 2000. A Study on the Factors of Locational Conflicts in Unwanted Facilitie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1(20): 275-295.
- Kang, Eeung Man and Tae Ryong Kim. 2013. Study on Factors and Solutions of Policy Conflicts: Focus on the Case of Wonju City.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3(2): 137-154.
- Kawecka, N. S. 2011. Volunteering to Give up Privilege? How Affluent Youth Volunteers Respond to Class Privilege.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40(3): 263-289.
- Kim, Jin Young. 2018. Social Capital and Inter-floor Noise Conflict.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7(2): 133-160.
- Lamont, M. and L. Thévenot. 2000. Introduction. In *Rethinking Comparative Cultural Sociology: Repertoires of Evaluation*

-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pp. 1-24)*.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dden, C. J. and N. M. Huijts. 2009. The Role of Trust in the Affective Evaluation of Novel Risks: The Case of CO2 Storage.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9(5): 743-751.
- Middleton, A., A. Murie and R. Groves. 2005. Social Capital and Neighbourhoods that Work. *Urban Studies*. 42(10): 1711-1738.
- Misztal, B. 2013.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John Wiley and Sons.
- Park, Ki Gwan. 2016. A Study on the Conflict factors and Conflict resolution for Golf Course Development Located: Focus on the Conflict Case of Hongcheon-Gu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8(1): 155-180.
- Peel, D. and G. J. McLachlan.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4): 339-348.
- Petrova, M. A. 2016. From NIMBY to Acceptance: Toward a Novel Framework—VESPA—For Organizing and Interpreting Community Concerns. *Renewable Energy*. 86: 1280-1294.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utzel, J. 1997. Policy Arena: Accounting for the 'Dark Side' of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the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9(7): 939-949.
- Reed, P. and L. K. Selbee. 2002. *Is There a Distinctive Pattern of Values Associated with Giving and Volunteering?: The Canadian Case*. Statistics Canada.
- Rotolo, T. and J. Wilson. 2014. Social Heterogeneity and Volunteering in US Cities. *Sociological Forum*. 29(2): 429-452.
- Shemtov, R. 2003. Social Networks and Sustained Activism in Local NIMBY Campaigns. *Sociological Forum*. 18(2): 215-244.
- Shin, Hyeon Woong. 2010. The Effec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Pover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iegrist, M. 2008. Factors Influencing Public Acceptance of Innovative Food Technologies and Products. *Trends in Food Science and Technology*. 19(11): 603-608.
- Siegrist, M., T. C. Earle and H. Gutscher. 2005. Perception of Risk: The Influence of General Trust and General Confidence. *Journal of Risk Research*. 8: 145-156.
- Song, Kyung Jae. 2013.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Civic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2(2): 221-244.
- Stolle, D. and M. Hooghe. 2004. The Roots of Social Capital: Attitudinal and Network Mechanisms in the Relation between Youth and Adult Indicators of Social Capital. *Acta Politica*. 39(4): 422-441.
- Stolle, D. and T. Rocho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65.
- Uslaner, E. M. 2013. Trust as an Alternative to Risk. *Public Choice*. 157(3-4): 629-639.
- Vorkinn, M. and H. Riese. 2001. Environmental Concern in a Local Context: The Significance of Place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ur*. 33: 249-263.
- Wilkinson, J. 2010. Personal Communities: Responsible Individualism or Another Fall for Public Man? *Sociology*. 44(3): 453-470.
- Wolsink, M. 2006. Invalid Theory Impedes our Understanding: A Critique on the Persistence of the Language of NIMB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 85-91.
- Woolley, F. 1998. Social Cohesion and Voluntary Activity: Making Connections. A Paper presented in CSLS Conference on the State of Living Standards and the Quality of Life in Canada.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응만, 김태룡. 2013. 정책갈등의 요인과 해소전략. *한국정책 연구*. 13(2): 137-154.
- 김진영. 2018. 사회자본과 층간소음 갈등. *한국정책학회보*. 27(2): 133-160.
- 박기관. 2016. 골프장개발 입지를 둘러싼 갈등영향요인과 해결 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155-180.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 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윤필경. 2010.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45-69.
- 전주상. 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275-295.
- 최화식. 2012.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4): 123-151.

Received: Sep. 27, 2018 / Revised: Oct. 24, 2018 / Accepted: Nov. 12, 2018

개인의 님비(NIMBY) 태도 변화에 대한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영향

–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반신뢰, 자원봉사·기부가 개인의 님비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1·4·7·10차 종단자료(13,821명)를 대상으로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님비 태도 잠재계층은 님비 태도 변화 속도에 따라 빠른 증가 집단, 중간 증가 집단, 느린 증가 집단,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 각각은 갈등을 완화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효과의 이중성을 보였다. 일반신뢰는 님비 태도의 중간·빠른 증가 집단 대비 낮은 속도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고, 자원봉사와 기부는 빠른 증가 대비 중간 속도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신뢰는 중간 속도 그룹 대비 빠른 속도 그룹에 속할 확률을, 자원봉사와 기부는 낮은 속도 증가 집단 대비 중간·빠른 속도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의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님비, 갈등, 일반신뢰, 자원봉사, 기부

Profiles **Jeong An Song** : She received her Ph.D. at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6. Her dissertation explored how and why public expenditure for volunteering promotion is unintendedly crowding out volunteering in Korea, in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ent-seeking theory. She was a research fellow in Seoul Volunteer Center in 2017 and now is teaching at Kwangwoon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areas are civic engagement,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nd welfare-mix economy(jaro2000@naver.com).